

2021. 경남교육정책포럼 학생 내면의 위기와 역경 극복을 위한 정서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2021년 8월 30일(월) 16:00 ~
장 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3층 다원
운영방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중계

01	<인터뷰>	경험 공유를 통한 학생정서지원의 필요성 제안 1 (학부모 김지현)
02	<기조강연>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회복적 공동체의 역할 9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이재영 대표)
03	<발제>	힘듦의 발견, 함께 하자 15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하경남)
04	<사례발표>	회복적학교 교육공동체관계를 잇다 23 (덕정초등학교 교사 오세연)
05	<사례발표>	지역사회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교육 공동체 관계 형성 31 (양산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주선희)
06	<분야별 토론>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37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박시동)
07	<분야별 토론>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대책 51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김재우)



2021. 경남교육정책포럼

인터뷰

경험 공유를 통한 학생정서지원의 필요성 제안

1

학부모 김지현



경험 공유를 통한 학생정서지원의 필요성 제안

김 지 현

학부모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김지현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첫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 저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도 몇 번의 심호흡을 하고 쿵쿵 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빈속에 카페인을 섭취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이가 아픈 시련을 잘 이겨내고 갓 대학생이 되어 학교생활과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 대인관계를 잘 유지 하고 있기에 혹시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또 한 번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아픔을 겪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인지라 저의 아이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경상도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자녀를 나약하게 키웠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이가 겪었던 일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들 간에 왕따 사건을 겪었던 경험을 계기로 어른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일어나는데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에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며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초기 담임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였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에 가기 전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학교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계속 항문에서 피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급한 대로 생리대를 채우고 담임 선생님께 아이가 병원에 갔다가 오면 보내겠다고 문자를 남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아이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중학교를 가는데 너는 왜 적응을 못하느냐'고 야단을 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소심하다고 1%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명



랑하고 지나칠 정도로 장난을 잘 치며, 친구들과도 잘 지냈기에 적응을 하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아이가 자란 곳에서 조금 떨어진 지금의 동네로 초등학교 3학년 초기에 이사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워낙에 밝았기에 전학을 하더라도 잘 적응할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들과 힘들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제 아이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전학을 오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힘들다’라고 말을 하면 잘 적응하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거라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그저 아이가 적응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하며 아이에게 야단을 치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자 아이들이 같은 중학교로 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은 경험하기도 힘든 피땀을 싸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설마 ‘내 아이’라는 생각에 담임 선생님이 그 외에 어떤 말을 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에게 이야기하기보다 서로 같이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안하고 일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 이야기를 모르는 척 다른 아이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잘못 되었다면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라는 것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다음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눈물을 꼭 참으며 아이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전학을 와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엄마가 이야기해 준대로 운동을 위해 축구부에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체격이 있다 보니 골키퍼를 하였는데 시험 시 골을 잘 막지 못하면 아이들이 골키퍼 때문에 패한 것이라고, 자기를 원망하는 말을 할 때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격 값도 못하고, 똥똥하다고 놀리기도 하고 눈물이 글썽이면 또 우냐고 놀리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모둠 활동을 할 때면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직업 조사를 위해 모둠 인원들이 두 명, 세 명이 나누어서 주위의 여러 곳을 다니며 조사하는 활동을 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전학을 온 관계로 잘 모른다고 아이들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당황을 금치 못하였고, 그런 것은 어머니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아이는 엄마는 장사한다고 바빠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며,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네가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선생님은 자기처럼 약한 아이보다는 강한 아이들을 더 좋아 한다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학교에서 같은 반이 된 친구들을 보면서 이야기 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학원을 마치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

를 가다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자살을 하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3층의 교회 건물로 찾았지만 마침 교회의 문이 잠겨 있었다면서 그래도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을 때 엄마가 전화를 해서 “어디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와!”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 야단을 쳐야 하나, 아니면 같이 울어야 하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농담을 섞어서 “네가 만약 3층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 죽었을 수도 있지만 잘못 되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으며, 엄마 때문에 장애인도 되지 않고 잘 살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빨리 치료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알아보고 가려고 하니 상담센터에 다니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자기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말에 상담센터보다는 아이와 함께 이겨 나가기 위해 서로에 대하여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는 학교에서 아침조례부터 종례 시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다짐을 받고 같이 헤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던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초기 억울한 일이 있다면서 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 하였습니다. 세 명의 아이가 돌아가면서 자기를 힘들게 한다면, 그중에 초등학교부터 축구부를 하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친구가 2학년이 되어 같은 반이 되었는데 하루는 본인이 과자를 먹고 과자봉지를 우리 아이 책상에도 가져다 놓으며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과자 봉지를 다시 그 아이의 책상에 가져다 놓으며 내가 먹은 거니까 내가 갖다 버리라고 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책상을 밀치고 일어서며 아이에게 “네가 안 맞은 지 오래 되었지?”라고 말하며, “한번 맞아야 정신 차리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어이가 없어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였다고,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엄마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 하라고 말을 하였지만 아이가 하지 않을 것 같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지금은 학부모 상담기간이 아니라 다음에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학년 때 아이가 자살충동을 느꼈기에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 저도 모르게 초등학교부터 아이가 친구들에게 맞고 다닌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게를 접고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 와서는 저를 보고 놀라며 엄마 왜 왔냐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다시 자신이 힘들어 질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는지 저에게 원망의 눈빛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세 명의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었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선생님께 화를 내며 “도둑질한 아이한테 도둑질을 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겠어요?”라고 화를 냈고 아이들을 다그치며 협박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사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기에 되도록이면 잘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너무 성의 없는 대답에 화가 많이 났기에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아이에게 협박을 한 아이부터 다그치며, 네가 양아치냐고 왜 양아치처럼 행동을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아이 뒤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여서 너 예전부터 우리 아이를 때렸냐고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한 친구는 키가 큰 편인데 우리 아이 옆을 지나갈 때면 어깨를 치면서 지나가거나 몸을 부딪치면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작아서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너보다 큰 사람이 지나가다 너에게 부딪치고 어깨 빵을 한다면 어떨 것 같냐고 하니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연못가에서 잘 놀고 있는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에 맞아 개구리가 소리 지르며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한 친구는 급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아이에게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말로 스트레스를 주고는 급식 당번일 때는 맛있는 반찬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조금만 주고 김치나 나물반찬은 아이가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급식 당번일 때면 한 번씩 급식을 거르기도 하고, 급식을 먹지 않아 배가 너무 고플 때는 학교 밖 김밥집에서 급하게 김밥을 먹은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친구의 엄마가 저희 가게 단골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저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에게 밥 먹을 때마다 많이 먹는다고 조금만 먹으라고 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김밥집 아주머니가 저희 가게에 오시면 아들이 한 번씩 점심때 김밥을 사러 왔다고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학교에 찾아간 일로 인하여 아이가 다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아이 입에서 너희 때문에 괴롭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렇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묻지 않고 바로 학폭위를 열어 주겠다.”고 협박 겸 엄포를 놓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사건 이후로 집에 와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을 까봐 걱정이 앞서 같은 학년의 아이 학부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관찰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잘 이겨 나가다보니 하루는 아이가, 엄마가 그 당시 학교에 와서 친구들에게 한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친구들이 반감을 가지고 더 괴롭히면 어쩌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이들에게 제가 시킨 대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니 아이들이 다시는 자신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면서 처음 힘들었을 때 엄마에게 먼저 말을 했었다면 자기는 더 많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다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목소리를 높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 편에 서서 끝

임없이 관찰을 하고 아이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는 괜찮겠지,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 마음이 약하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이 모두 남들에게나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겪고 보니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주위의 친한 이웃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옛일을 돌아보니 주위에서 아이의 변화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자녀에 대한 칭찬은 잘 알아듣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주위의 누군가가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한 면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가정에서의 자녀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녀가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을 잘 관찰해야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힘들 때 한 두 번은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나약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아이는 어디에도 아픔을 호소 할 곳이 없어지고, 결국은 아픔을 잊을 수 있는 막바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라는 노랫말을 저는 매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경남교육정책포럼

기조강연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회복적 공동체의 역할

2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이재영 대표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회복적 공동체의 역할

이재영 대표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겨난 신조어이다. 비대면이 일상화 되고 사람사이의 거리두기가 권장되는 새롭지만 전혀 반갑지 않은 현상이 일상에서 지속되면서 생겨난 정말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회적 현상 가운데에 청소년들이 느끼는 위기감이나 정서적 불안감은 성인들과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경제생활에 대한 위축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주요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현상은 단지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분명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소년들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은 비단 이런 사회경제적 환경보다 더 복잡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분석¹⁾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대 청소년의 고의적 자해는 전년대비 49% 증가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20대까지 포함하면 거의 2.5배로 급증했다.) 그리고 고의적 자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전 상황과 연관성이 깊은 심리상담 건수는 76%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급격한 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은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 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즉 신체활동은 급격하고 줄고(67%), 집에 혼자 머물며 하는 온라인 활동이 급증(53%)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만큼 유해 환경에 노출빈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는 청소년들에게 일상인 학교생활을 빼앗아 감으로써 사회적 정서적 관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1년 반 이상 이런 새롭고 낯선 환경의 결과로 청소년 우울감 증가, 미래와 학업에 대한 불안감 증대, 사이버 폭력과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피해 증가로 이어지는 부정적 문화에 급속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바라보면 이런 현상은 단지 코로나19 사태가 만들어낸 결과만은 아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가진지 오래

1) ‘코로나19가 학생자살에 미치는 영향, 매일경제 2021.8.25 코로나 블루 위험수위 기사 중 발췌



되었다. 특히 10년이 넘도록 청소년 사망원인 부동의 1위도 자살인 나라이다. 이미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등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에서도 조기에 문제위험군의 학생들을 발견하고 전문적 치료접근을 통해 이런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것이 진단키트나 설문문을 통한 자가진단과 전문 상담 및 치료와의 연계 방식이다. 이런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온 방식이고 분명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작성하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담이나 치료 등 전문적 접근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해 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스스로 작성하는 검사자료라는 측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의 경우, 또한 학부모에게 결과가 통보되고 또래 사이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힐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조사에 임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을 선별해 내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3년에 한번 진행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의 특성인 충동적으로 벌어지는 자살시도를 파악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최근 벌어진 경남의 안타까운 청소년 자살사건의 경우에도 이 특성검사에서는 걸러지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년으로 나타났었다.

따라서 위험군 선별 후 전문가 인계라는 전문가 중심 예방 시스템 계발과 아울러 일상과 개인적 예방에 대한 시도도 같이 높아져야 한다. 앞에서 자신의 자녀의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긴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 친구, 교사, 학부모와 같이 청소년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공유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정서적 불안요소가 극단적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누구나 살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은 관계성에 기초한 해결책 계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실 이것이 학교라는 교육공동체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접근방법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경남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인적 인프라가 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남의 경우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지난 4-5년간 회복적 생활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활동가의 인력풀을 키워오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연구회 등의 자생적 동아리 모임과 경남 8개 도시에서 진행되어 온 회복적 생활교육 마을교사(활동가) 양성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해온 학부모 인력이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아직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회복적 학교를 지향하면서 또래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소수의 학교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지역의 인적자원이야말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

재적 요소이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여 학생들과의 민감함 이야기를 안전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학부모 훈련과 지역사회 자원 역할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자신의 어려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특히 내적 정서적 갈등이 깊은 청소년 시기의 경우 더더욱 안전한 공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안전한 공간의 확보는 전문가의 손에 넘어가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경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경남의 많은 학교에서 실험되고 있는 학교 공동체 서클 같은 경우 일상을 나누는 좋은 툴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비대면 수업 때문에 이런 안전한 공간에도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직접 참여하는 수업이 적을수록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는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접근에서 일상의 삶을 나누는 평범한 개인들과 생활공동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니 이 둘은 병행과 보안의 관계로서 함께 발전해 가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일상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관계상의 어려움 또는 개인의 어려움을 파악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와 마을 활동가들은 직접 참여하는 스터디 서클과 같은 방식의 자기 경험공유를 통해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주변의 청소년을 위한 공동의 역할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래조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확대하여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의 안정망을 넓혀 나가는 학교의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은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기존의 학교와 교육청의 자살예방 및 정서지원 시스템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정서 지원과 고의적 자해와 같은 직접적 위험 행동을 예방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

언제든 전문가의 시대는 개인들과 공동체의 역할을 축소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전문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공동체가 가져왔던 또 가져야 하는 자연스러운 예방과 위기대처의 역할을 스스로 높여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 자신을 돌보는 길이라는 평범한 공동체의 진리에서 답을 찾는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경남의 회복적 정의에 기반 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의 노력은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의 역할을 회복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위기의 시기에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우리 모두의 관점전환과 따뜻한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2021. 경남교육정책포럼

발제

힘들의 발견, 함께 하자 3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하경남



학생 정서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제언

힘듦의 발견, 함께 하자

하 경 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하는 공간이다. 즉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런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만들고, 다양한 장면에서 배우려고 애쓴다. 그 속에서 학생들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도 배운다. 자주적이며 창의성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 다양한 장면에서 자신의 성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활 태도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지만, 이 말은 이미 수직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어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은 점차 바뀌고 있다.

개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무릇 자라게 하기 위한 생활교육으로의 변화가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이유는 수없이 많다.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심각해져 ‘묻지 마 살인’, ‘묻지 마 폭행’이 난무한 시대이다. 배려가 무엇인지, 소통이 무엇인지, 존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의 경험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어른인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여러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부조리하고 공정치 못한 부분들이 여실히,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대증적 치료법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근본적인 시스템을 수정하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된다. 정서행동 특성검사나 각종 검사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힘든 아이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자신의 힘듦을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힘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주변에게 도움을 받고자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배움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보호자, 교직원조차도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 각자의 생각이 모여 집단지성으로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 훌륭히 꾸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글로서는 배웠으나 그것을 직접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했기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태도



를 갖기란 힘든 구조였다.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한다.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기를 수 있어야 하겠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다면 공동체가 그것을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자 모두 그 대상이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경험을 가져야 한다.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험,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능력, 공감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잘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속 책자에 들어있는 역량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은 연수의 기회와 역량을 기를 시간을 줘야 할 것이며, 감당할 수 있는 학생 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불평등은 곧 아이들의 가정환경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그들의 돌봄 역시 불평등해진다. 그러하기에 아이들의 힘듦을 오롯이 학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학교를 탓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장 살아가기 힘든 가정의 경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경제적인 기반을 위해 그 순간만을 버티며 살아가기에 자신을 돌볼 틈도 없고 아이를 돌볼 틈도,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아챌 여유가 없다. 아이의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 학교에서는 다양한 부모교육 기회를 만들고 제공하지만, 그것조차도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든 가정에서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은 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책임과 해결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그 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달되고 결국 고스란히 공동체(학교, 마을, 직장, 도시, 사회 등)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수 공간을 학교, 교육청,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나 지자체는 연수의 공간에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시스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공공의 자산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라 본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일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되어야 한다. 일상의 신뢰서클을 좋은 톨로 활용할 수 있다. 교직원 간의 다모임,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에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항상 같이 공유하며 시작해 보자. 그렇게 일상의 관계망을 만들어 두면 누군가가 힘든 것을 표현하기도 쉽고 누군가가 인지하기도 쉽다.

교사가 학생들과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사 또한 교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같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적학습공동체나 각종 회의가 글과 말만이 떠다니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망이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이나 교과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편안한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이 비단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수업 방해 행동을 어떻게 풀어갈까를 고민할 때 경남교육청에서 관련 각 담당과 현장교사들이 TF팀을 꾸려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 첫 출발은 교권이었지만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교권의 방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근원적인 해결책도 생각하면서 ‘이음교실’이라는 형태를 만들었다. 이 같은 경험은 교육청 내에 각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연결되지 않은 현실을 뛰어 넘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본다. 각 영역마다 좋은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막상 학교현장에서는 그것들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구현될 수 없는 과한 일거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 본래의 임무인 배움의 공간을 각 학교 단위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대다수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 정서행동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일을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내에서의 업무다이어트가 필수적이라 본다.

경남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경남교육청이 육성해 놓은 지역민의 인프라인 행복교육지구의 ‘마을교사’가 존재한다. 경남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배움의 시간을 많이 확대한다면 아이의 정서행동이상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이상행동을 진단, 지원하고 있다.

아래 글은 행복교육지구에 속한 한 회복적 마을교사가 회복적 정의를 배우고 난 뒤 자신의 변화 또는 기대를 작성한 글이다. 이 글을 통해 학부모 연수나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 옮겨 보았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야단칠 일도 화낼 일도 한걸음 물러서게 되고요. 화내고 짜증나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화내고 짜증나는 일이 줄어드니까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사표현하구요. 가족 간의 소통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냅니다. 실천이 힘드네요.

‘회복적 정의’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마치 40년간 눈에 맞지도 않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응보적 정의’가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 믿었다는 사실에 이런 내용을 왜 이제야 접하게 되었을까?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특강에 이어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2가지는 이루고 싶다는 것이 있었는데 첫째가 많은 사람들이 ‘회복적 정의’를 알고 사회 전반에 적용이 가능토록 했으면 하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육아 쪽에서도 활용하길 바랐습니다. 앞으로도 회복적 정의를 통해 피해자가 극복하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회복적 정의를 통해 행복한 도시로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부족하나마 행복한 지역이 되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복적 정의를 접하고 나서는 뉴스를 통해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엘마이라 사건이 생각이 나고 법으로 처리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상처만 남고 양쪽 모두 회복이 안 될 텐데 걱정이 되면서 회복적 정의를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들 단점이 보일 때마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맘같이 잘 되지는 않지만 가족 관계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어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삶의 습관이 바뀌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나는 서클도 처음 접해 보는데 서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각자의 생각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너무 흥미롭고 재미가 나네요.

어느 집단이나 갈등 상황은 존재합니다. 가장 작은 가정에서조차 잦은 갈등이 생기니 학교는 오죽하겠어요. 이런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 통제. 관섭. 구성원 존중. 수긍할 만한 원칙도 없고 권위를 가진 사람 마음대로인 폐쇄적 공동체. 가족. 사회. 학교 등 부정적 경험이 반감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에게 개인과 공동체는 현실에서 대립. 양자택일로 경험하게 된 데는 공동체가 작동하는 원리로 공공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네요.

나의 사고방식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인정하고, 사고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되어 사람들의 행동들을 대체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화날 일이 줄어들고 삶에 여유가 생겼다.

어느 집단이나 갈등 상황은 존재합니다. 가장 작은 가정에서조차 잦은 갈등이 생기니 학교는 오죽하겠어요. 이런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 통제. 관섭. 구성원 존중. 수긍할 만한 원칙도 없고 권위를 가진 사람 마음대로인 폐쇄적 공동체. 가족. 사회. 학교 등 부정적 경험이 반감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에게 개인과 공동체는 현실에서 대립. 양자택일로 경험하게 된 데는 공동체가 작동하는 원리로 공공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네요.

회복적 정의를 만나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자부했었습니다. 내 아이를 잘 안다고, 내 남편을 안다고, 하지만 가정 내에서 종종 서클을 해 보니 모르는 것투성이에 남편의 눈에 저는 아이였고, 아이들 눈에 저는 자신들의 마음을 잘 못 알아듣는 엄마이고 성숙된 아내보단 항상 어리광 피는 아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 서클을 통해서 저는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 포부, 느낌, 요구, 엄마로서 더 갖춰야할 덕목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로서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 어떤 걸 걱정하는지 어떤걸 알아야 하는지 등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가정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회복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생성되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내에서 각 개인 스스로가 자기 돌봄이 되고 서로의 힘듦을 알아차릴 수 있는 관계망 구축위해 일상의 '서클'의 틀을 활용한 시공간을 마련하자. 이를 위해서는 일상의 서클을 진행할 수 있는 교원 양성과 일상의 학급 내 서클 운영 시간, 교직원간 일상의 '서클' 가능한 시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

둘째,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김해봉황초등학교의 사례처럼 학교단위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 김해봉황초등학교와 같은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학교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요원 양성과 컨설팅 시간 확보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기관의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교사 돌봄을 위한 지지서클 연수를 비롯하여 생활교육의 철학을 바꿀 연수의 기회를 늘리자. 변화의 의지를 가진 자발적인 교사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강의 개설 최소 인원을 설정하지 않고 소규모라도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보호자가 아이의 힘듦을 알아차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자. 우선 회복적 마을교사 중 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에 한해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한다면 이들의 능력을 질적 담보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추가 양성으로 부모교육 인력풀을 확대한다면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연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정서행동의 이상으로 삶을 포기하는 학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관계망이 탄탄한 학교 공간을 창출하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 간 서로에 대해, 또는 학생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사의 담당 시수 축소, 교사 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교육청의 국이나 과 내에서 서로 소통하며 정책을 공유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업무 다이어트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소위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지자체의 찾아가는 안전망을 위한 인력풀과 재정을 추가하자.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어린이나 청소년은 어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이 보호에서 벗어난 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일탈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제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고립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다. 아이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 정서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정리해 보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제는 당연해진 말을 한 번 더 떠올려 본다.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 발 더 다가서는 방법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우리가 한 가지씩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본다면 아이들의 정서 지원책은 지금과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2021. 경남교육정책포럼

사례발표

회복적학교, 교육공동체 관계를 잇다

4

덕정초등학교 교사 오세연



회복적학교, 교육공동체 관계를 잇다

오 세 연

덕정초등학교 교사

코로나 19는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온 모든 일상 영역을 뒤흔들어냈다. 사상 초유라 불리는 ‘온라인 개학’, ‘비대면 수업’, ‘사회적 거리 두기’, ‘언컨택트’, ‘온컨택트’ 같은 개념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교사는 앞으로의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학교 현장에 던지게 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미래 교육을 주제로 포럼도 열고 발 빠르게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방향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원격수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치중하는 게 아쉽다. 포스트 코로나에 교사가 진정으로 가져야 교육적 가치가 과연 온라인 수업 능력 향상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학교의 역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지식 전수의 기능이 최고로 여기던 학교의 역할이 팬데믹과 함께 여지없이 무너졌다. 거리두기로 만나지 못했던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등교와 동시에 학교폭력 건수는 교육청을 마비시킬 정도로 폭발하고 있다. 또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아졌다. 한국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017년 1년을 제외하고 OECD 자살률 1위 국가다.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환경,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충동성과 맞물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즘 인터넷 신문 기사 하단에 심심치 않게 정서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라는 광고문구를 보게 된다. 코로나는 어른뿐 아니라 학생의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 특히,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위기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다.

학교는 그 자체로 삶을 배우는 곳이다. 수업을 넘어 건강한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동체 관계에서 존중, 평등, 책임 같은 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우는 곳이다. 지식과 권리를 앞세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괴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며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곳이어야 한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학교는 앞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대학입학이라는 목표 앞에 학교는 학생에게 끊임없이 경쟁과 소외,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사람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존재라는 것이다. ‘거리두기’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학교폭력 건수의 폭발적 증가가 시사하는 바도 크다. 코로



나로 인해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의 갈등을 증폭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 단절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어딜 가서 하소연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시공간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학교는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생은 지식을 배우는 곳일 뿐 아니라 공동체 관계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에서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맞대어 고민하고 풀어내는 공간으로 도약해야 할 때이다.

“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아픔을 견디게 해줘요. 작은 숲(공동체) 많이 만들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작은 약속도 하고, ‘그 인간적인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
여럿이 함께(신영복)

팬데믹 그 뒤는 변화가 따른다. 학교도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가장 취약한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해 학교문화를 바꾼 사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김해봉황초등학교는 공동체성을 높이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전 교직원이 실천하고 있는 회복적 학교다. 회복적 생활교육²⁾은 행복학교를 잘해보려는 고민에서, 아이들 생활지도가 어려워 수업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공동체가 찾은 대안이었다. 2017년부터 회복적생활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왔고 시간의 힘과 더불어 ‘갈등’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풀어나가는 연습을 4여 년간 꾸준히 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김해봉황초등학교의 학교문화가 많이 달라졌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교실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사소한 갈등이 일어난다. 서로 잘 연결하려고 하지만 서툴다 보니 필연으로 일어나는 게 갈등이다. 하지만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단절이나 깨어짐이 아니라 더욱 확고하게 연결해주고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또 그렇게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 공동체는 더할 나위 없이 단단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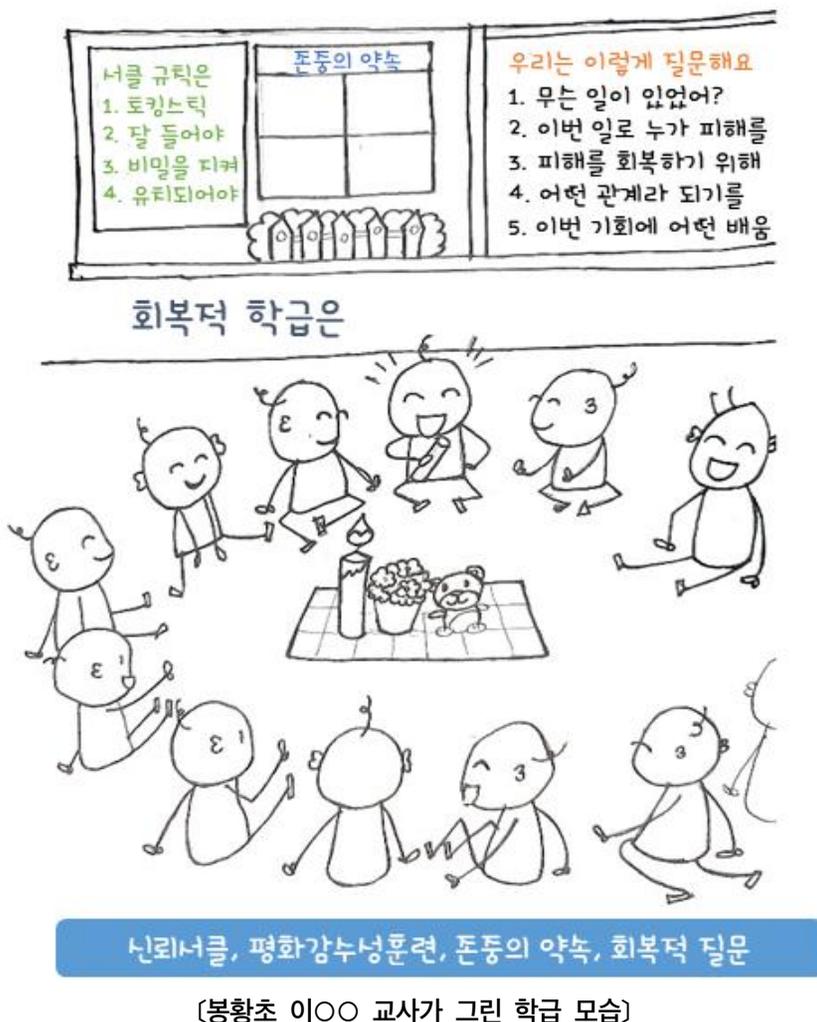
김해봉황초 교실에는 규칙적인 신뢰서클, 존중의 약속 만들기, 교과와 연계한 평화감수성훈련, 회복적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학기 초 담임과 학생으로 만나서 또 새로운 반으로 구성된 아이들이 만났을 때 3월 2주에서 많게는 4주까지 진단활동과 더불어 관계성을 높여 서로 알아갈 수 있는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만든다. 이런 활동은 김해봉황초 전 교직원이 아이들의 관계형성활동이 학기 초에 매우 중요함에 합의하고 새학년워크샵에서 같이 만들어 낸 것이다. 경북에서 전입

2) 이재영, 회복적정의 세상을 치유하다, 피스빌딩, p.228-229.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접근하고, 학급운영과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을 회복적 정의 가치와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이다.

해 온 한 교사는 “새학년워크샵에서 뭐 이런 걸 하나 하루 정도 진단활동하고 바로 수업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닌가? 생각했는데 5월이 지나갈 무렵 알았어요. 대개 5, 6학년 아이들은 사소한 거로 저희끼리 싸워서 학폭이 열리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싸우고 다시 친해지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걸 봤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특히나 그렇다. 친구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기에서 소외나 왕따가 일어났을 때 정말 힘들어한다. 하지만 학기 초 관계형성, 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서클에서 아이들의 고민과 힘듦은 자연스럽게 발견되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 관계 맺는 담임교사가 반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다. 하나의 학급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옆에 누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쏟으면 좋겠다. 학교폭력, 정서적 어려움이 모두 관계 단절이 불러온 거라면 김해봉황초 선생님의 학급 운영은 교사가 진정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봉황초등학교 아이들은 앞으로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공감능력, 감정이해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을 규칙적인 신뢰서클과 평화감수성 훈련, 존중의 약속 만들기로 끊임없이 키워가고 있다.





회복적 학교문화



김해봉황초등학교의 학교문화를 잘 설명하는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작년 시설 주무관님 퇴임식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와 아이들에게 그동안 보여준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조촐하게 퇴임식을 열었다. 그곳에 모인 김해봉황초 교직원 공동체의 진심이 표정에, 행동에 녹아있다. 누군가는 손수 선물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의미 있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공동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동영상 만들었다. 여기에 김해봉황초 교직원 공동체의 관계망이 잘 드러난다.

행복학교 4년, 행복나눔학교를 거치면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모임 규칙을 3년 동안 계속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도 있었고 업무지원팀을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해 전담 시수로 겪는 갈등도 있었다. 학년과 업무를 어떻게 배정할지 고민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다. 회복적 학교 사업을 하면서 무관심과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것이다. 어떤 갈등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겪는 당연한 갈등과 어려움이었다. 자기 에너지를 그만큼 내어주었기에 내 학교라는 생각이 학생에게도 교사에게 학부모에게도 강하다.

가장 민주적인 학교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학교다. 김해봉황초는 4년 내내 끊임없이 소외되지 않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내 학교를 거치는 과정을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해왔다. 그 힘을 바탕으로 회복적 학교를 세워 학급, 학년, 학교 공동체를 세웠다. 그 과정에 무수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 또한 많이 변했다.

학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을 바꾸고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교실 공간을 만들어왔다.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누구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회의문화를 만들어왔다. 강압적인 규칙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지켜낼 수 있는 약속을 했다.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함께 하는 길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함께 할 힘이 되었다.

코로나로 알았다. 우리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말이다. 김해봉황초등학교의 학교문화는 분명 달라졌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계'라는 요소를 넣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회복적생활교육이 시작이었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철학과 방향성에 동의했고 모든 교육활동에 관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천하고 있다. 생활교육 자율동아리 '따봉', 교직원 워크샵, 다모임, 연수, 교육과정설명회, 전문적학습공동체 모두 마찬가지다.

며칠 전 '학기 초 평화감수성 훈련'이라는 주제로 어느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수업했다. 여름 방학을 마치고 바로 온 터라 여름방학에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2학기를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를 말하고 듣는 자리였다. 그때 밝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한 학생이 가족에서 매일 살해 위협을 느껴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개학해서 학교에 오게 되니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을 학교 관련자에게 말해주었고 아무도 그 학생이 그럴 거로 생각하지 못했기에 충격이었고 방법을 고민하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 안타깝다. 대개 학교의 공간에서 이렇게 자기 아픔과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외부인인 내가 아니라 담임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그 아이와 그 반의 문제가 아닌 학교에서 공동체로 같이 도울 방법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문화다.

이런 점에서 김혜봉황초는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학교문화가 가능하다. 내가 하는 일이 옆 반의 눈치 때문에 못 할 일이 아닌 지혜와 방향이 모여 함께 공동체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광고에 말로 “참 좋은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도 없네…”가 떠 오른다. 김혜봉황초뿐 아니라 이런 학교문화가 많은 학교에서 퍼졌으면 좋겠다. “공감받아봐야 공감해 줄 수 있고 존중받아봐야 존중할 수 있고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봐야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풀어 갈 수 있다.” 이 쉬운 원리가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에게 알아차림과 지푸라기가 돼줄 수도 있을 거라 확신한다.

E-mail osy1668@naver.com



[봉황초 이○○ 교사가 그린 학교 모습]



2021. 경남교육정책포럼

사례발표

지역사회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교육 공동체 관계 형성

5

양산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주선희



지역사회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교육 공동체 관계 형성

주 선 희

양산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1 서론

가. 학교와 회복적 생활교육 마을교사와의 만남

우리의 아이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어울림 속에서 평화로운 공동체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와 회복적 생활교육 마을교사와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학교에서 서클 진행자와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형의 서클로 초대되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마음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한 행동이 우리 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조금씩 알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들이 정의를 향해 가까이 가는 모습에서 힘을 얻어 아이들 만나러 가는 길이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 행복한 우리 “나의 첫 사회생활”

학교는 아이들이 첫 사회생활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학교라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모임 때,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 위해 모였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관계의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 가보면 마음과 관계가 힘든 아이들도 있었고,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학교라는 공간이 편하지 않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2 본론

가. 회복적 생활교육 마을교사가 만난 우리의 아이들

회복적 생활교육 마을교사가 만난 우리의 아이들은 일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의 상처받은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보이며 “속상해요.”, “화나요.” 그리고 “죽고 싶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 가정에서 아동폭력, 코로나19로 집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이버 폭력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형의 서클에서 만난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친구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의 이야기들은 마을교사와 일대일 대화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며 매미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미가 되고 싶은 이유는 빨리 죽고 싶어서라고 말하며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다툼으로 집이 편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교실 속 다른 아이들 모습과 다르게 검은색 야구 모자를 꼭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눈을 보여주지 않는 아이였는데, 다행히도 개인 활동에서 표현을 해주었어요. 흰색 종이에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표현하라고 했더니 검은색으로 사람을 세 명 그리고 빨간색으로 칼을 그렸는데, 한 사람당 2~3개의 칼이 목과 배를 찌르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숨기고 싶은지 그림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의 많은 말들이 있었을 텐데 그림으로 표현해줘서 고마워! 네가 준비가 되면 선생님은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야.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 그림도 보고 올 테니까 이야기 하고 싶을 때 천천히 마음 열어 줘,” 라고 말하고 친구들 그림으로 이야기 나누고 다시 왔을 때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한 참을 울던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힘들어요.”라고 말했고, 가족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학년실에서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보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아이는 검은색 모자는 쓰지 않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어요. 마음속 무거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니 아이는 천천히 걸어 나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난 듯 했습니다.

한 아이는 기본이 안 좋은 나(응보의 아이)를 표현하면서 속상했던 말, 아프게 했던 말을 쓰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화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던 중 그림을 보며 1:1 대화를 하는데, 친오빠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계속 심부름(물 떠와, 리모컨 가져와 등)을 시켜서 힘들어하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오빠 편을 들며 엄마는 속한마음을 털어놓는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는 변함없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자살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하며 울었고, 학교 오는 날이 너무 좋다고 말하며 속상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상처받은 아이에게 따뜻한 마음의 쉼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친구의 아픔을 내가 안아줄 수도 있는 곳으로 대면 수업이면 당연히 가야 하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유할 수 있고, 극단적 행동으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정서적 불안감이 목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면 세심하게 관찰하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회복 탄력성으로 위험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자랄 수 있기를...

지금 학교는 한 명의 선생님이 반별로 20~30명대 아이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경남에는 회복적 생활교육 마을교사를

4년 전부터 양성을 했고, 현재 9개 행복교육지구(2018년 김해, 밀양, 양산, 남해를 시작으로 2019년 진주, 고성, 사천, 하동 그리고 2020년 합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 지원을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진행할 때, 특정 교사의 일이 아닌 주변의 누군가가 ‘따뜻한 비빌 언덕’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 주변에 있어 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합니다. 지역민, 학부모, 청소년, 교사 대상 교육으로 작게는 개인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나아가 주변 누군가의 마음도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이 된다면 예방효과 뿐 아니라 위기 대처의 역할을 스스로 또는 공동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기의 학생이 있는 반은 조금 더 장기적인 교육의 기회로 아이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년별로 매년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결론

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집은 부모님의 다툼으로 전쟁터와 같다고 말하는 아이, 따뜻한 밥을 챙겨주는 누군가가 없어서 학교에서 먹는 점심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아이,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학교 오는 시간이 죽기보다 싫은 아이도 있습니다.

각자의 다른 상황과 아픔을 안고 학교라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나의 마음도 좋았다가 싫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따뜻하게 안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주고, ‘무슨 일이 있었니?’, ‘지금 너의 마음은 어때?’ 그리고 ‘맞아! 당연한 것은 없어. 이렇게 네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리고 힘든 말이었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가지고 있는 마음속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할 수 있나요? 수많은 질문에 함께 공감하고 지지해준다면 힘들어서 옆을 볼 수 없었던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마을교사이고, 지역민,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이며 사진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사진을 찍으시는가요? 행복한 순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아름다운 풍경, 가족사진, 우정사진, 그리고 증명사진 등 목적이 있는 사진도 있지만, 평범했던 일상의 어느 한 조각을 우연히 남기는 사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



진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누군가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사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사진. 맞습니다. 영정사진입니다.

삶을 끝났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상처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정 사진을 작업할 때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교복을 입고 멧쩍은 미소를 보내주는 아이,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속 아이, 이쁜 미소를 간직한 아이의 모습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힘든 순간에 마음을 안아줬다는 경험, 힘들었던 마음만큼 크게 부풀었던 풍선에 바람이 천천히 빠지듯 내 이야기를 공감하고 환대해줬던 경험이 상처받았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의 능력과 권리만 앞세우는 아이로 자라기보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연결과 책임을 배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숲’을 울창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살리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람으로 사는 길을... 그 환경이 어떤 모습이든 일관되게 가르치려고 고민하는 우리의 회복의 힘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마을로 지역으로 퍼져나가 모든 아이들이 일상에서 웃음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2021. 경남교육정책포럼

분야별 토론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6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박시동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박 시 동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1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중심을 둔 교육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³⁾.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6가지의 미래역량을 갖춘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창의융합형 인재⁴⁾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5 개정 총론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에 환경과 여건을 반영하여 각 급별로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을 만들어 학생의 배움(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배움 중심의 수업혁신, 교육공동체의 참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교육복지, 지원행정 등 다양한 경남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미래역량 중심의 수업혁신,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등 3대 역점 정책은 학생에게 가장 친근하고, 참여가 가능한 직접적인 활동, 내면화, 체험과 경험이 확산, 내면화 등 학생들의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다.

3) 2015 개정 총론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4)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경남교육청의 정책 방향

구분	이전	현재
학력관	학력중심	역량중심
학생평가	획일적인 평가중심(일제고사)	과정 중심 평가
수업	교사 주도적 중심수업 (학생 맞춤형 교사주도 학습지도)	학생중심 배움중심수업 (학생 맞춤형 학생주도적학습)
	대면중심(교사:학생)	대면중심(교사:학생-학생:학생 등 다양)
교육과정	지역 특색 교육과정 반영 미흡	학교/지역 특색 교육과정 반영 강화
학교 종류	일반/직업계고 중심 교육	일반/직업계고 외 다양성학교 활성화 (연극고/영화고/음악고/자유학교/예술학교)
교육생태계	학교교육+현장체험학습	학교교육에서 마을교육으로 확대
학생자치	학교 내 활동 중심 학생회+학습/취미중심 동아리	학교 안팎 학생자치활동 지원 (행복교육지구 확산-13개 지역)
교육복지	개인 중심 교육복지 (무상급식·교육+교육복지)	개인에서 학교복지로 확대 (학교평등예산제/학교자율선택제 /작은학교살리기)

그동안 교육정책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주도 학습지도에서 학생주도 배움중심수업으로 바뀌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등 다양한 방법의 소통체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등 교육공간이 차츰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남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행복교육지구는 김해시를 포함한 도내 1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고, 2022년에는 도내 18개 시군의 모든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복지 영역으로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으며, 학습준비물, 수학여행비 지원, 초중고 신입생의 교육/체육복 지급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개인 여건을 중심으로 지급되던 교육복지 정책은 학교평등예산제·학교자율선택제·작은 학교살리기 등 학교단위로 추진영역을 확대하여, 학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학습주제에 따라 학급별, 학년별, 또한 학급 내 다양한 규모의 학습조직을 운영하였으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대면중심의 수업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서 기존 교육은 더 이상 장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3 학생 성장을 위한 경남교육청의 지원 체계

학생 심신 수련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90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교육규칙 제887호]에 근거하여 여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와 낙동강학생교육원,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주요 업무⁵⁾

5개 담당 운영	민주시민교육담당, 대안치유담당, 학교폭력담당, 성인식개선담당, 교육인권경영담당	
주요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지원 2. 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 및 지원 3. 학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 4. 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5. 회복적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 6. 경남학생회장단 운영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7. 학생봉사활동 운영 및 지원 8. 학교안전사고(생활, 물놀이) 관련 사안 처리 지원 9.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원 10. Wee프로젝트(Wee센터, Wee스쿨, Wee클래스) 운영 및 지원 11. 학생자살예방교육 운영 및 위기관리 지원 12.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13. 학생도박문제 및 중독예방에 관한 업무 14. 대안교육 운영 및 지원 15. 학업중단예방 및 부적응학생 지원 16.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업무 17. 청소년 단체 지원 및 학생교육원 운영 지도(분원포함) 18. 기숙사 학생 생활지도 및 운영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 청소년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2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총괄 2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조치 22. 학교폭력 관련 법률 상담지원 23.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과 가해학생 조치 및 선도 지원 24.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25. 초·중·고등학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CCTV, 배움터지킴이 등) 26. 성인식개선에 관한 업무 27.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정책 운영 28.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 29. 117 신고센터 운영 지원 30. 교육인권경영센터 운영 및 교육인권경영 실천 지원 31. 교육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32.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상담 및 조사 지원) 33. 교육공동체 인권교육 및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5)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https://www.gne.go.kr>)



나. 낙동강학생교육원의 학생 생활 및 정서 지원

2009년 3월에 개원한 낙동강학생교육원⁶⁾은 당초 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을 담당하였으나, 교육부훈령 제285호 (위(Wee)프로젝트 사업⁷⁾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2012년)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학년도 특별교육 수료학생 인원:199명 (학생 100명, 학부모 99명)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돌봄·치유·성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상담활동과 공동체생활을 통한 내적치유를 기반으로 회복탄력성을 향상하여, 주체적인 인성을 함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타인과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한다.

단계	내용	
중점과제	1. 치유성장(H&G) 프로그램 운영 3. 감성소통 프로그램 운영	2. 감사(GAMSA) 프로그램 운영 4. 잡자(JOB-JA) 프로그램 운영
운영철학	- 치유와 회복, - 소통과 공감, - 존중과 배려, - 나눔과 성장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2박3일)을 운영하며 △인지교육, △치유교육, △봉사교육, △체험활동을 통해 갈등상황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익히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 받고 타인의 마음으로 느끼는 공감능력을 배우고 있다. 또한 잡자(JOB-JA)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업체험, 진로체험 인턴십 활동을 통해 위탁생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대안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다.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운영을 통한 학생 정서 지원

2012년부터 교육부훈령 제285호 (위(Wee)프로젝트 사업⁸⁾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Wee프로젝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Wee프로젝트는 단위학교 내 Wee클래스 운영,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의 Wee센터 운영, 시도교육청 차원의 Wee스쿨 운영 등 3단계로 운영된다.

- 1차 safe-net: 단위학교 내 Wee클래스의 운영
- 2차 safe-net: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의 Wee센터 운영
- 3차 safe-net: 시도교육청 차원의 Wee스쿨 운영

6) 낙동강학생교육원은 2개의 분원(진산/칠북)을 두고 있으며, 교육연구관 3명, 교육연구사 3명, 파견교사 22명, 일반직 12명, 교육공무직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음
 7) 위 프로젝트(Wee Project) 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8) 위 프로젝트(Wee Project) 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또한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다중의 촘촘하고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부적응 학생을 돕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원교육지원청의 창원Wee센터에는 담당 장학사(1명), 전문상담교사(13명), 임상심리사(1명), 사회복지사(1명)가 근무하며 의뢰받은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개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문적 심리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에 의해 상담과 치료 및 위기 조치를 수행하고, 필요시 지역사회의 전문기관, 병원, 쉼터, 경찰 등과 연계하여 내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상담 절차>

단계	내용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 및 학부모 동의파악 - 내담자의 인적사항, 교사의뢰사항 파악 - 공문을 통한 신청(신청 전 사전 문의전화 필수)
초기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스크리닝 - 가족력, 현재의 스트레스, 정서적 상태, 내담자의 사회적 연결망, 대인관계 갈등 파악 - 주 사례 관리자 배정(사례회의 후)
진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WISC-IV, MMPI, BGT, HTP, KFD 등 - 내담자의 인지, 정서, 행동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지역사회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치료지원 연계 - 취약가정 경제영역의 서비스 지원연계 - 유료지원서비스(치료기관 연계 및 비용 일부지원)
상담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된 내담자의 핵심문제 진단 - 목표를 설정하여 변화를 위한 적절한 상담기법을 적용
사후평가/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및 학부모 사후협의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수상담 및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이러한 활동은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기본상담활동과 학급단위의 교육활동 지원, 부모교육,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학생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Wee센터 연간 운영 계획>

영역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 상담	개인상담, 심층심리평가, 사례회의	○	○	○	○	○	○	○	○	○	○	○	○
	상주 순회상담, 집단상담			○	○	○	○			○	○	○	○
교육 활동	학급 단위	학교폭력예방교육			○	○	○	○	○				
		생명존중교육								○	○	○	
		성폭력예방, 진로, 미디어과몰입예방교육									○	○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기초교육					○	○					
		심화교육							○	○			
		전문적 학습공동체			○	○	○	○	○	○	○	○	○
	상담업무 담당교사 연수				○								
	Wee프로젝트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						○	
	Wee센터 전문인력 수퍼비전				○	○	○	○	○	○	○	○	○
	Wee프로젝트 담당자 사례연구회								○				○
Wee센터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지원								○				○	
소통 · 공유	가족 유대강화 프로그램							○					
	부모교육 프로그램					○					○		
	Wee센터 상담주간				○					○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안정 키트											○	○
	Wee프로젝트 컨설팅								○	○	○	○	○
건강 · 안전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	○	○	○	○		○	○	○
	학생 심리치료 프로그램		○	○	○	○	○	○	○	○	○	○	○
	아이좋아	연계치료			○	○	○	○	○	○	○	○	○
		희망드림센터 사후 프로그램											○
	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심층평가					○	○	○				
		사후 연수								○			
	정신과 자문의 프로그램					○	○	○	○	○	○	○	○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숙려상담				○	○	○	○	○	○	○	○	
	진로체험프로그램				○	○	○	○	○	○	○	○	
복지	취약계층 유료지원				○	○	○	○	○	○	○	○	
	멘토링 프로그램									○	○	○	
	지역사회 자원연계		○	○	○	○	○	○	○	○	○	○	
홍보	길거리 홍보				○					○			
	Wee센터 홍보부스						○					○	
	Wee센터 소식지/SNS, 인터넷신문 등		○	○	○	○	○	○	○	○	○	○	

라. 그 밖의 학생수련활동 운영 기관

산촌유학교육원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생활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원이며,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학생교육원과 덕유학생교육원은 도내 고등학교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특히 낙동강학생교육원은「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돕는 기관이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수련활동 운영 직속기관 종류>

직속기관명	설치 목적	주요활동	비고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분포한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과 농촌생활의 체험교육 -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 집단 기숙활동에 의한 공동체 의식 교육 - 학습하는 방법의 교육 -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교육 	함양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로 협동적인 민주 시민 의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련활동 	의령 남해분원(남해)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 단련으로 애국하는 국민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확고한 국가관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련 활동 - 교직원의 연수 - 애국애족관 관리·운영 	함양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교육활동 	김해 진산분원(진주) 칠북분원(함안)



4 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코로나19 종식이나 전 국민 백신접종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종식보다 오히려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코로나19 확산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한국교육개발원 김경애 외. 2020)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취약집단 학생들의 일상은 처참하다. 감염병 위기보다 더 클 수 있는 위기, 하지만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기가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관계 속에 침투해 있다. 가정 배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위해서 그동안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왔는데 그 힘이 최소화되면서 이들은 발달과 성장에서 전방위적으로 큰 균열을 겪어야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바이러스에 자체에 대한 위협보다 오히려 감염병 위협에 따른 관계의 단절, 불안정한 교육과정 운영, 학습 공백, 돌봄 공백 등 기존의 교육방법, 학생 생활지도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 위기이다. 학습격차 심화, 진로·진학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성 발달에 주목해야 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면

첫째, 학생들의 생활 리듬이 망가졌으며 낙담이 포기로 이어지면서 에너지를 잃고 무력해졌다. 학교와 지역의 기관들에서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삶의 규칙성과 긴장성이 허물어졌다. 많은 아이들은 별 에너지가 필요 없는 활동, 즉 스마트폰이나 학교에서 대여해준 스마트 기기로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눈빛에서 초점이 없어지고 자는 것과 깨어나는 것, 쉬는 것과 활동하는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지루한 일상에 대한 낙담이 포기로 이어졌다.

둘째, 관계망과 소속집단에서 이탈하여 관계와 정체성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쌓는 경험을 박탈당하면서 누군가는 '평생 친구'를 만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평범한'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자세와 습관을 요구하던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과의 거리도 멀어졌다. 교육적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주거나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인지적·신체적·감정적 자극이 없어졌다는 점이 불리함의 한 측면이 되었다.

셋째, 학력을 비롯하여 취약집단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며 퇴행까지 보이는 경우도 생겼다. 학력 수준 저하는 물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사회생활, 사고실험, 활동, 규칙 지키기, 자기절제 등이 멈추면서 다차원적인 역량을 함양할 기회도 사라졌다. 교육과정 내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해볼 기회를 빼앗긴 아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소중한 진로 개발의 기회도 빼앗겼다.

결국 코로나19 시기,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 불리함의 원인은 사회의 새로운 구조인 '격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 머물라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더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강요된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습의 장, 어른들과의 교류의 장이 없어졌고 이것이 아이들의 성장 기회, 더 나아가 성장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특별히 가정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학교가 전부'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에게 휴교는 삶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통체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현재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운영만으로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거나 학생-교사 관계를 회복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진행되는 학습·진학 중심의 교사-학부모 소통으로 학생지도도 쉽지 않을 것이다. 원격수업, 온/오프라인 블렌디드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학습 이외의 어떤 방식으로든 만남의 형식과 소통의 시간은 필요하다. 직접 말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도, 대규모로 소통하기 어렵다면 소규모의 소통체계를 마련 등 교사-학생-학부모의 일상적인 소통체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상으로도 학생-교사-학부모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자율적인 학생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은 또래집단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간다. 거리두기의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또래집단과 동아리활동, 모둠활동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온라인 활동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이 2020년 10월에 실시한「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 결과」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시기] 에 학생들은 '다양한 학교활동이 없어서 힘들었어요.(모둠활동, 체육, 신체활동, 동아리활동 등)초등학생 33.1%, 중학생 22.1%, 고등학생 21.3%, 특수교육 대상자 15.4%는 응답하였다.

셋째, 새로운 위기 상황에 맞는 학생 정서 지원 체계와 운영방식을 점검하여 교육기관 간·교육주체 간·교육기관과 교육주체 들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 정서지원을 위해 직속기관인 낙동강학생교육원의 Wee스쿨,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단위 학교의 Wee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담당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에는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전문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외부기관에는 의료기관 등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새로운 위기 상황에 맞게 지원기관과 지원인력이 학생 정서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할 때이다. 나아가 보호자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예민하게 살펴보고 감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기관 간, 교육주체 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른 한 축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교육의 시스템을 바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래를 앞당겨 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소통방식, 학습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막연히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감염병의 위기와 빅데이터-AI시대에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미래역량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학생의 정서지원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생 정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기 상황을 반영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직원의 업무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교무행정팀 운영 내실화, 도내 모든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및 교무행정 전담인력 추가 배치하는 등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모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방과 후 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부담업무 중심으로 대폭 이양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교사들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준비, 학생들의 방역수칙 지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3배의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외 업무경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등교 시 학생지도,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급식시간, 교재연구 등 하루가 부족하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여전히 감염병 위기에 따른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전담 여건 조성, 업무 매뉴얼의 정비, 현장중심의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단위학교도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구성원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나오며

코로나19의 위기는 한 순간 지나가는 팬데믹, 유행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 있어 돌아오지 않는 위기의 서막에 불과할지 모른다.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학생들의 삶을 덮칠지 알 수 없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도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폭풍과도 같은 성장기를 지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하루, 한시가 급하다. 성장기 학생들의 하루, 한 달의 성장 기회의 가치는 어른들의 시간과 분명히 다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시급이 교육기관이, 교직원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6 **참고자료**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여러 나라의 정책 방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러 나라들도 학생 건강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21년 7월 28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 학생 건강 지원정책의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학생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공동 대응
- △학생 상담을 대면방식에서 비대면의 원격상담 서비스 방법의 도입과 확대
- △학생의 정서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소통체계 마련
- △학생의 주 고민인 학력격차 보다 학력저하에 관심을 두고 디지털 격차 줄이기 노력

미국 은 학교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정서적 기술을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학생-가정-교육자 간 관계 형성과 교사의 역량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이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사회정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원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격 의료서비스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원격과 대면으로 모두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개발에 추가 예산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정서학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는 학생의 학교 출석과 학교를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개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물리적 거리 확보를 통한 학습 공간 마련, 세면 시설 추가, 개인보호장비 및 청소용품 제공, 환기 시설 보수 지원하며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및 자원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학교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인력 강화**하고,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학생지원 강화**함으로써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쳐 교육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인권과 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천사항을 표준화하거나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장벽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은 2021년부터 **의료계와 교육계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교원의 정신건강과 복지에 미친 영향과 해결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액션그룹(action group)**이 발족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이라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교원연수과정은 개발 운영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는 고위급 교사(1명)을 학생의 정신건강 및**



웰빙 관리 담당자로 지정하고, 교원연수과정을 통해 학생 정서 지원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협력체계 및 학교기반 상담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단위학교나 학생에게 신속한 도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와 지속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연락망 체계를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 는 학생 정신건강 지원책으로 2021년 3월부터 3회의 무료 심리상담 이용권 제공하기로 하고, 교육부에서 2021년 고용한 81명의 심리상담가 혹은 프랑스 심리상담사 네트워크 소속 심리상담사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3회 무료 상담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호자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예민하게 살펴보고 감지할 수 있도록 ‘교사포털 사이트(eduscol)’와 학부모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상, 질문 방법, 스트레스나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방법 등의 자료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일본 은 코로나19로 새롭게 나타난 학생문제를 학생의 학업부진, 학력 격차, 아동학대, 부등교, 자살 등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문부과학성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문제는 ‘학생 자살’ 부문으로 일본의 자살 학생 수가 1980년부터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20년에 49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특히 2020년도는 전년도보다 100명(전년도 대비 약 25%)이나 증가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학생 자살 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교사들이 학생들의 표면화되기 어려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크리닝(screening)⁹⁾’을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둘째로, 온라인 <어린이 스트레스 체크> 설문조사 결과를 대응하고 있다. 셋째, ‘RAMPS(Risk Assessment of mental & Physical status)¹⁰⁾’으로 교사나 양호교사가 학생의 자살 징후와 심리 불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신상태평가와 지원촉진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 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를 증원 배치하여 고민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9) 먼저 교사가 스크리닝 전용 양식에 학생의 상황 기입→스크리닝 회의→학기별로 교직원회의나 학년회의에서 학급당 10~30분 정도 학생 전체의 상황 확인→교사의 개입, 지역자원의 활용, 전문기관의 활용에 대해 양식에 기입→학생지도교사, 양호교사, 특별지원교원, 학교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 위원회’를 통해 공동 대응의 방식으로 운영

10) <정신 및 신체 상태의 위험도 평가> 학생(보건실 이용 학생 또는 전체 학생 대상) 설문응답→자동으로 자살 징후/심리 불안 상태 확인 가능→도입학교 빠르게 늘어남, 스마트폰으로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들이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021. 경남교육정책포럼

분야별 토론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대책

7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김재우



책임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 자살예방대책

경남교육청 장학사 김재우

아이중아

2021
학생 자살(자해)대응
교사용 안내서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Ō OFFICE OF EDUCATION

참고자료

<p>교사용 자살예방 게이젠키피 '괜찮나' 특목특 교육자료</p>	<p>학교를 위한 응급심리지원 - 실행지침서</p>	<p>2020. 학생 자해예방 안내서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p>
<p>2020. 생명존중 및 자살(자해) 예방 매뉴얼(교사용)</p>	<p>2019. 생명존중 및 자살(자해) 예방 매뉴얼(교사용)</p>	<p>2018. 학교 응급심리지원 안내서</p>

함께 단원이 | 김재우, 강미옥, 문정우, 손종혁, 이상엽, 정건국, 주상아, 홍대성, 박보경



자살(시도) 및 자해 행동에 대한 이해

자살(시도)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로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

복합적이며 예측이 어려우나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학업 기정불화, 대인관계, 폭력 등의 스트레스가 자살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삶을 끝내려는 것

자해

죽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고통스러운 감정이 너무 힘들어 신체적 고통으로 마음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함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일시적 도피

- 자해하는 학생이 꼭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해행동이 지속되고 자살의도가 있다면 자살시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해행동과 자살시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살의도가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자살의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자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묻고 대화하는 것이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자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살행에 옮기기 직전까지 같습니다. 이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 준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 자해행동 이해

- 자살시도와 자해행동 구분하기(뜻, 이유, 목적)
- 자살의도 종합적인 평가 중요
- 자살 관련 직접 묻고 대화하기
- 학생의 마음 알아차려 주기

▲ 자살/자해 학생의 특성

부모이혼, 학대, 방임, 경제적 빈곤 등

신변비관, 병리적, 트라우마경험, 소외

생명존중 부재, 복수심, 도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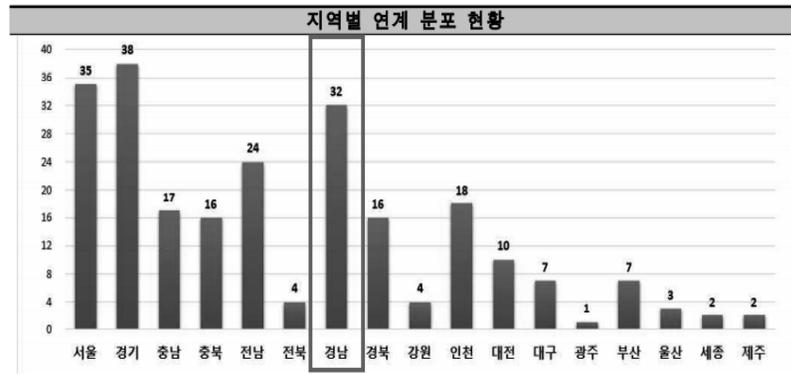
교사나 부모의 꾸지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때

학교폭력(가.피해자) 왕따, 이성관계 친구와의 잦은 충돌

성적이 떨어지거나 주위의 높은 기대 입시에 대한 압박

▲ 학생위기문자 상담망 전국 연계현황

(단위: 건)



- 학생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게')
- 지역별 연계 현황: 경기 > 서울 > 경남 순으로
위기 개입 및 연계를 통해 학생 자살예방 효과
- 채널이용 현황: 카카오톡 > 앱 > 문자 > 페이스북 순으로 이용

▲ 학생 자살원인 및 정신건강 관련 분석

○ (자살원인) 진로·학업 관련 문제, 부모-자녀 간 갈등이 촉발요인 등으로 작용하며, 자살자 중 고등학생 비율이 높음

- (촉발요인 중 부모갈등) 17~19년 평균(18.3%) → 20년(15.5%) → **21년(28.1%)**
- (1년내 문제 중 부모-자녀갈등) 17~19년 평균(24.2%) → 20년(20.3%) → **21년(26.3%)**
- (1년내 문제 중 학업문제) 17~19년 평균(35.4%) → 20년(31.8%) → **21년(42.1%)**
- (고등학생 자살) 17~19년 평균(63.8%) → 20년(62.1%) → **21년(66.7%)**

○ (정신건강) 불안, 우울 정신질환 등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증가

- (불안) 17~19년 평균(11.4%) → 20년(16.2%) → **21년(24.6%)**
- (우울증 등 정신질환) 17~19년 평균(20.2%) → 20년(23.6%) → **21년(28.0%)**

◆ 최근 3년 평균 학생 자살 증가 특성(1월~4월 비율- 27.1%, 5월~8월 비율 - 41.0%, 9월~12월 비율 - 31.9%)을 감안할 때 현 증가 추세로 하반기 전망하면 '21년도 학생 자살자 수가 최대치 우려



▲ 2021년 학생 자살예방 대책-1

○ 학교 내 자살(자해) 위기 학생 조기발견 강화

- 교직원 대상 게이트키퍼 교육 강화:

학생들의 위험신호 인식을 제고를 통한 학생자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육(2회),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 담당자 연수
적극 실시

- 자살징후 학생 조기 발견:

교사용 학생자살 체크리스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1, 4 / 중1 / 고1)
활용

고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발견 중요

1. 교원 관찰 통한 발견 > 2. 게이트키퍼 교육 > 3. 검사 활용

▲ 2021년 학생 자살예방 대책-2

○ 학교장 중심의 전 교직원 자살(자해) 위기 학생 지원 역량 강화

- 힘내라 북 프로젝트:

자살(자해)시도 보고건 발생시 서한문 및 도서 발송을 통한 전 교직
원 관심 제고(20년 100건, 21년 6.15.기준 106건)

- 학생 자살(자해)대응 교사용 안내서 제작 배부: 전 교직원(6월)

- 뉴스레터 특별판 적극 활용: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학생정신건강 관
리 및 자살예방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이해도 제고

전 교직원의 관심과 역량 강화 노력 필요

1. 교사용 안내서 > 2. 힘내라 북프로젝트 > 3. 뉴스레터 활용

▲ 2021년 학생 자살예방 대책-3

○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 지원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사업(자문, 치료비): 전 교육지원청
-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치료비): 7개 권역
- Wee센터 정신과 자문의 사업(자문): 5개 교육지원청, 낙동강학생교육원

발견된 학생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 지원

1. 전문가 자문: 전문의 자문을 통한 치료 연계 강화
2. 종합심리평가: 임상심리전문가 통한 보고서 작성
3. 치료비 지원: 시도자, 고위험군 학생(김해 Wee센터)

▲ 2021년 학생 자살예방 대책-4

○ 학교응급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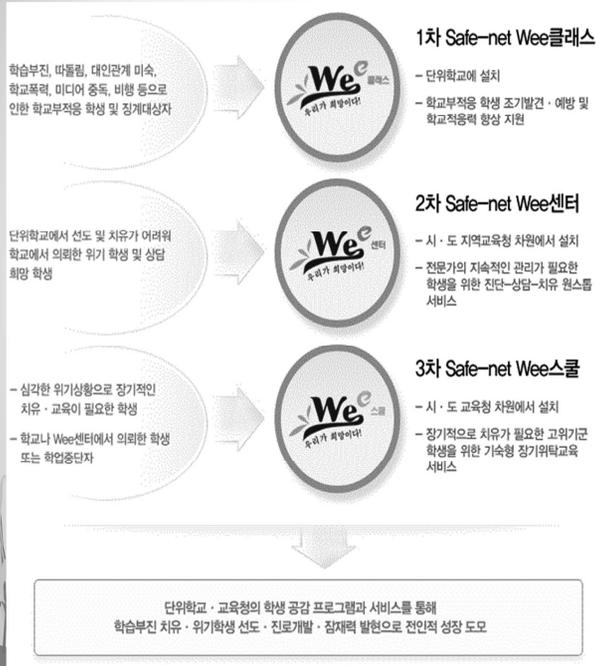
- 학교응급심리지원단 모의훈련 실시: 교육지원청 담당자 1차(6.7,6.9.) 완료, 2차(7.6.~7.7.) 실시 예정, 각 40명 내외
- 학교응급심리지원 키트 제작 배부 예정: 100세트(전 교육지원청)

모든 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

1. 학교응급심리지원팀 구성하여 사안 발생 인지시 즉각 지원
2. 지원 내용: 학교응급심리지원, 전문가 자문,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 Wee프로젝트 개요



- 목적: 모든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 주요 기관
 1. Wee클래스: 학교(총 595교)
 2. Wee센터: 교육지원청 (18청)
 3. Wee스쿨: 직속기관(본원, 2분원)

학생들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